장마뒤끝 과일 왜이리 달지?

포도·복숭아 등 8월 집중 땡볕 '속설' 깨고 오히려 당도 높아

'장마 뒤끝 과일 맛 없다'는 속설(俗說)은 이제 옛말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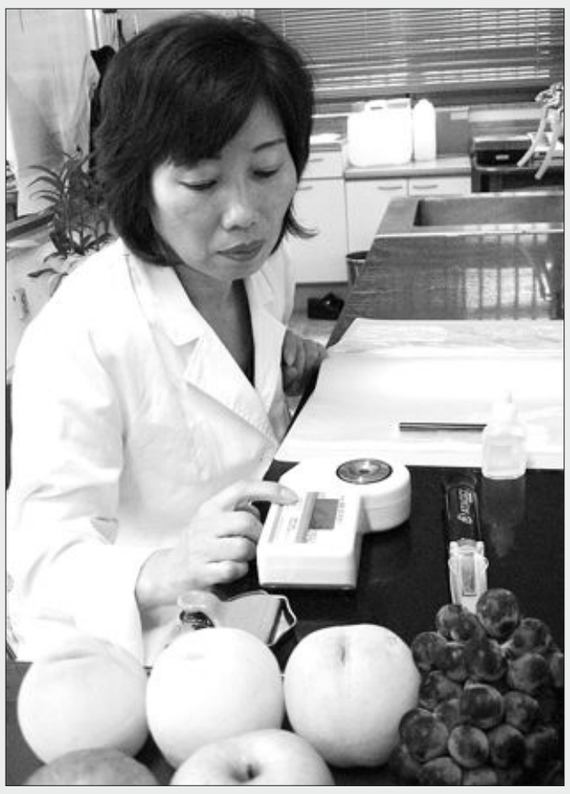
화순·담양 등 전남도내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과일 당도(糖度, Bx=Brix)를 조사해보니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올 장마는 최근 10년 새 가장 긴 37일간으로 평년(346.2㎜)보다 많은 무려 643.2㎜의 비를 뿌렸다. 이 때문에 포도는 7~10일 정도 숙기(熟期)가 늦어졌고, 사과는 갈반현상과 점무늬 낙엽병이 번져 아직은 크기가 작다.

하지만 당도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담양군 고서면 구름다리 포도시범단지의 '탑푸르트' 포도의 경우 당도가 15.5~16.5 Bx이고, 아직 출하되지 않은 거봉은 18~20Bx까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는 평균 15.2Bx였다.

화순 도곡과 능주의 복숭아는 지난해 10.5~12Bx였으나 올해는 ▲중생종 상품 : 11Bx ▲친환경농가 백도 : 13Bx로 조사됐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나주 조생종 배(원황)는 평균 11.5~12Bx로 평년 12.6Bx와 비슷했다. 사과도 생육 조건이 나빠 씨알은 작으나 당도는 조생종의 경우 12~13Bx로 양호한 편. 특히 사과와 배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이달 중순 이후 당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연구원이 올 수확한 복숭아와 사과, 포도의 당도를 측정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전남도 농업기술원 김남균 지도사는 "일조량이 부족, 당초 맛이 떨어질 것으로 걱정했으나 장마 이후 평균 33도의 불볕더위가 계속돼 당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기현상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지방 전문대 정원 30% 못채워

교육통계 발표…의대 연간 학비 1천만원 '훌쩍'

지방에 소재한 전문대학의 학생 충원율이 70% 안팎에 그쳐 심각한 모집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일 발표한 전국의 대학, 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문대의 평균 충원율은 88.6%였지만,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전문대 충원율은 70% 정도로 조사됐다. 충북이 67.1%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강원 68.5%, 제주 73.3%, 경북 73.7%, 전북 76.1% 등이다.

반면 서울 99.9%, 부산 88.8%, 대구 88.9%, 인천 99%, 경기 99.2%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높은 충원율을 보였다. 4년제 대학의 경우 평균 충원율은 97.7%였다.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처음으로 줄었고 학생 수 또한 2003년이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수는 327개로 전년도의 331개에 비해 4개가 줄었다. 전문대는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으로 152개로 6개가 줄었고 4년제 대학은 175개교로 2개가 늘었다.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는 전문대는 85만3천89 명에서 81만7천994명으로 크게 줄었고, 4년제 대학 재적 학생 수는 185만9천639 명에서 188만8천436명으로 소폭 늘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수는 6만3천716명으로 2000년 5만3천650명에 비해 1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문대의 경우 2000년 78명, 2006년 69.8명으로 줄었고, 4년제 대학의 경우 2000년 39.7명에서 2006년 36.5명으로 감소했다.

일반계고 졸업생의 전문대 진학률은 15.4%, 4년제 대학 진학률은 68.3%였고, 실업계고 졸업생의 전문대 진학률은 43.4%,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3.1%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한국은 6천47달러인데 비해 OECD 평균은 1만655달러에 달했다.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한 연간 학비는 의·치학 계열의 경우 포천중문의대 1천55만원, 연세대 1천31만원, 가천의대 1천16만원 등으로 1천만원을 넘어섰다.

백석대가 인문사회계열 663만 원, 이학계열 808만 원으로 학비가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은 고려대가 851만원으로 학비가 가장 높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발전(發電)노조 오늘 전면파업

여천산단 전력공급 '비상'

필수공익사업장인 한국전력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 발전노조가 4일 자정을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발전산업노조 여수화력 지부(노조원 122명)·호남 화력지부(노조원 135명) 노조원 140여 명은 3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공공연맹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발전노조는 이날 2천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대학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하더라도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와 호남화력발전소는 각각 1일 50만㎾급의 전력을 발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여천산업단지 등에 공급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발전 설비 고장 등에 따른 직접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GS칼텍스·한국 바스프 등 대형 사업장 80여곳은 순간정전 등으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된다. 각 가정 등 일반 수용가는 전력 공급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수·호남화력발전소는 발전노조가 4일 전면파업에 돌입할 경우 간부 인력 등을 투입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발전회사 노조는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 개선 ▲해고자 복직 ▲교대근무자 주 5일제 시행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인터넷 고스톱 10만원 벌기 한달 걸려

게임포털 '한게임' 조사

인터넷 고스톱으로 돈 10만원을 벌려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게임포털 '한게임'(www.hangame.com)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가 '고스톱 머니' 50억원(실제 돈 10만원)을 버는 시간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약 29일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신맞고' 게임 기준으로 이용자 승률을 상당히 잘하는 편인 60%로 잡고 게임 1회당 평균 시간 1분을 적용하면 기본 지급되는 게임머니 10만원을 갖고 50억원을 획득하는 데 약 706시간(29일 10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됐다.

시간당 수익은 약 141원으로, 인터넷 고스톱을 쳐서 얻는 수익은 최저임금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게 된다.

한편 '한게임'이 이용자 420만명의 이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5분 안팎, 유료 이용자는 6.2%(월 10만원 이상 결제 이용자 0.08%)에 그쳤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사행산업에 국민 1인당 75만원 베팅

지난해 시장규모 35조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평균 75만원을 사행산업에 베팅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 보고서에서 지난해 경마·경륜·경정·내국인 카지노·복권·사행성 게임장 등 국내 사행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75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300만원을 사행산업에 쏟아넣은 셈이다.

사행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규모는 약 6조5천억원으로 농림어업 생산(24조원)의 27%, 건설업 생산(66조원)의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4조5천억원은 공공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복권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대 사행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연간 약 20만4천명. 하지만 연간 이용객 수를 고려해 추정된 유발 실업자 수는 21만3천명으로 오히려 순 실업자 수가 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더위 한풀 꺾였네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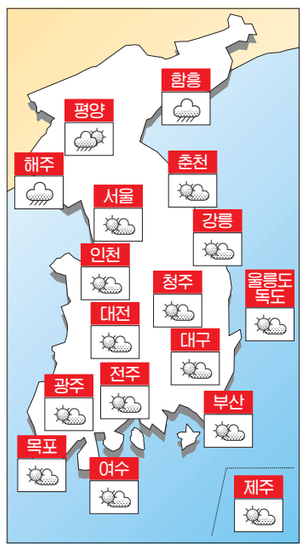
9월 4일 (윤 7월 12일) ◇전국날씨

날씨

광주	차차 흐려짐	21~29℃
목포	차차 흐려짐	21~29℃
여수	차차 흐려짐	23~28℃
완도	차차 흐려짐	20~29℃
구례	차차 흐려짐	20~30℃
해남	차차 흐려짐	20~29℃
장흥	차차 흐려짐	19~30℃
고흥	차차 흐려짐	20~29℃
순천	차차 흐려짐	19~30℃
영광	차차 흐려짐	20~30℃
진도	차차 흐려짐	21~31℃
전주	차차 흐려짐	20~30℃
남원	차차 흐려짐	19~30℃
정읍	차차 흐려짐	19~29℃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10:40 --:-- 썰물 05:00 16:36
여수 밀물 06:07 19:12 썰물 00:42 12:08



▲해뜸 06:07 ▲해짐 18:56 ▲달뜸 16:46 ▲달짐 01:2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날 씨						
최저/최고	19/27	19/28	19/28	19/29	20/30	18/29

서남해안 해상범죄 '꼼짝 마'

민·관·군·경 핫라인 구축

서남해를 대상으로 한 밀수나 밀입국 등 해상범죄와 간첩침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경의 '핫라인'(Hot-Line)이 구축됐다.

3일 육군 31사단(사단장 이봉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해상 및 내륙의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관·경 기관의 대표자와 육·해·공군 군 지휘관들이 최근 '핫라인'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핫라인 구축에 참여한 기관은 ▲31사단 ▲국정원 ▲해양수산청 ▲목포해역방어사령부 ▲공군 제1전투비행단 ▲11공수여단 ▲목포해양경찰본부 ▲여수·완도 해경 ▲전남지방경찰청 ▲지역 기무부대 등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장들은 상호 직접 통화가 가능한 통신망 카드를 제작·휴대하며, 앞으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상황에 즉각 대처하게 된다.

한편 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된 통합방위 체계가 지난해부터 정착되긴 했지만, 각 기관의 상황실을 거쳐 기관장들이 보고를 받은 뒤 조치를 취하게 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폐수처리시설 미설치 영산강환경청, 3곳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축산 농가 등 3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농가 3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영암군 신북면에서 도축업을 하는 L씨는 하루 평균 3~4마리의 개를 도살하면서, 피와 세척수 등을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환경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다.

담양군 창평면에서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N씨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육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청은 이들 농가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리고,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광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하루 0.1㎥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발생폐수를 적정처리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